

“완성불교보다 대중 속에서 함께 호흡해야”

근대 불교교육 선각자 용봉 스님... 비구·대처 갈등에 화해 앞장서

“불교신앙 교리의 핵심인 자비를 실천하는 대승보살행이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진정한 광명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는 모든 애육과 세간을 버린 무어열반(無餘涅槃)의 완성불교보다는 인간의 생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세속 대중 속에 뛰어 들어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자세 정립이 시급합니다.”

근대 불교교육의 선각자 용봉(龍峰) 대종사(금당(鎭塘) 이재복 선생(1918~1991)). 용봉 스님은 일생동안 불교, 교육, 문학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룬 선지식이다.

1918년 충남 공주 계룡에서 출생한 스님은 생후 6개월에 부친을 여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보통학교와 중등교육을 받았다. 스님은 15세(1932년)에 공주 감사에서 이훈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 후 마곡사 대승사 대원암 봉선사 금용사 등에서 보림하며 불연(佛緣)을 더했다.

18세(1935년)에 한국불교계 일선시찰단에 참여했던 용봉 스님은 21세에 불교 성곡단을 조직해 일본 순회공연을 펼치는 등 불교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22세(1939년)에 박대륜 스님의 법제자가 된 용봉 스님은 해화전 문학교(現 동국대)에서 박한영 권상호 김동화 교수에게 수학했다. 24세(1941년)에는 육당 최남선 선생의 서재에 머물며 정인보, 이광수 등 석학 문호들과 교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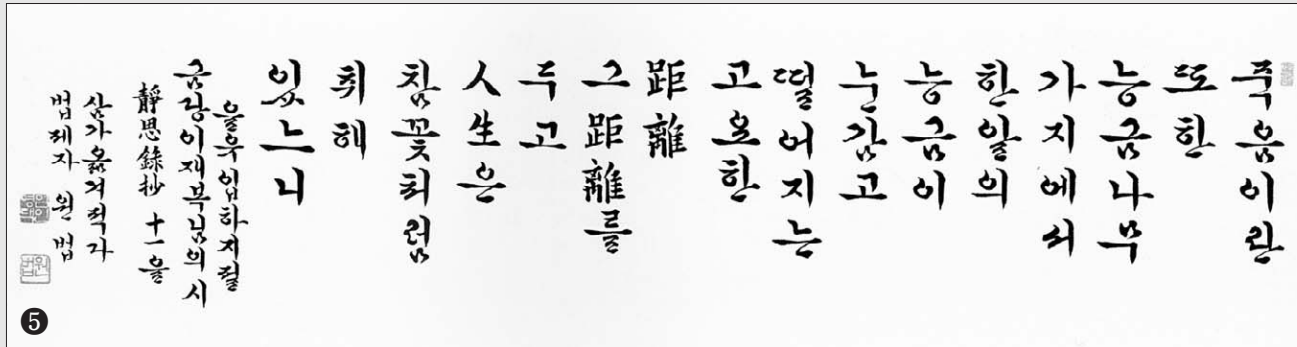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던 1945년, 용봉 스님은 충남불교청년회를 조직하고 마곡사 등에서 도내 사찰 주지 및 승려대회를 통해 대전·충청지역 중등사학의 효시인 보문중학교 설립을 주도했다.

29세(1946년)에 보문중학교 교장 서리를 하던 스님은 이후 34년간 교육 일선에서 인재양성에 힘쓰다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장을 끝으로 임직에 들었다. 스님의 세수 74세(1991년) 되던 해였다.

용봉 스님은 대전시 교장단 회장, 충남도교육회 회장, 대한교육



① 미담 서정주 선생(가운데)과 함께, 오른쪽이 용봉 스님.
 ② 역경원 부원장 시절.
 ③ 일본 사찰 순례시.
 ④ 부처님오신날 보문교에서 연설하고 있는 용봉 스님.
 ⑤ 대전 보문정사 원법 스님이 쓴 용봉 스님의 문학작품. 원법 스님의 글씨는 6월 5~11일 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전시된다.



연합회 회장 등 교직원들의 지도자로도 활동했을 뿐 아니라, 충남 지역 문화활동의 초석을 다지며 충남문인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교육을 통한 인재발사는 물론 다방면에서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1950~1960년대 한국불교가 비구·대처간의 갈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용봉 스님은 분규수습을 위한 불교재건 10인 위원, 비상종회 교화분과위원장 등에 선임돼 불교계의 화해와 융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매주 일요일 법회를 열어 출가자의 본분 중의 하나인 교화에도 힘이 없었다.

1950~1960년대 한국불교가 비구·대처간의 갈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용봉 스님이 평생 불교와 교육, 문학에 헌신한 결과는 20여 개의 법문(강의) 테이프, 3000여 회의 설법 자료, 시 등 문학작품 300여 점, 1만 여 매의 자료 카드 등 방대한 양으로 6월 5일 봉정빌 추모전에 오롯이 수록돼 있다.

“불교가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됩니다. 승단 자체도 부처님 당시의 원시불교 때에는 출가자 중심이었으나 이젠 하화중생의 대승행에 앞장서는 재가불교에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용봉 스님이 입적한지 18년이 지났다. 스님의 육성이 아직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고려, 동아시아 불교 번영 선도”

불교학연구회서 최병헌 명예교수 주장

“고려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송·요와 불전 교류를 활발히 하며, 대장경을 조판하는 등 동북아 불교 문화를 이끌었다.”

10~12세기 동아시아불교사상에서 고려의 위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에서 “고려가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번영을 선도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각)가 5월 9일 숙명여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최병헌 명예교수(서울대)는 기초강연 ‘동아시아불교사상의 고려불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는 10~12세기 불교 문화 교류의 주류를 찾는데 있어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불교문화 교류와 불전의 수직간행 등에 주목했다.

최병헌 명예교수는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의천 스님은 송에 가서 황제와 황태후를 비롯한 문무대신들을 만났고, 여러 사찰을 방문해 50여 종파의 고승들과 교류했다. 요와 일본과는 직접 교류는 안했으나

서신 등 간접적으로 교류했다”고 말했다.

의천 스님은 중국 일본과의 왕성한 교류를 바탕으로 불전 간행 예정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종목>을 펴냈다.

최 명예교수는 “의천 스님이 고려에서 소장하고 간행한 불교전적들을 수출함으로써 송·요·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의 매개자로 불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최병헌 명예교수는 “송과 요 사이 불전 등 서적반출이 금지됐던 상황에서 전개된 의천 스님의 국제적인 활동은 한·중·일 삼국간의 불교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한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 동아시아 불교권에 대한 연구가 한국 학자들이 소외된 채 일본 학자들 주도로 진행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동아시아 불교권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고 고려불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한국명상치료학회 5차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는 5월 23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5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명상에 기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인성학 교수(경북대)가 ‘현대 심리치료의 sati 해석과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자경 교수(이화여

대)가 ‘명상과 인지치료’ △인성 스님(동방대학원대)이 ‘수용과 전념치료(ACT)에서의 명상적용’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영숙 교수(이화여대) 안성두 교수(금강대) 임용자 교수(대전대) 우제선·황옥자 교수(동국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02) 2236-5306 조동섭·노덕환 기자

한국선학회 학술대회 ‘종교와...’ 학술대회

한국선학회(회장 김영두)는 5월 23일 오전 10시 원광대 승산기념관에서 ‘선과 근대불교’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비구니 분공 선사와 선종진작’ (하춘생), ‘근대선학원의 개혁 인식 연구’ (김경집), ‘박종빈의 불교개혁과 선사상’ (김방룡), ‘고암 선사의 생애와 사상’ (진월 스님) 등이 발표된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5월 2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 307호에서 ‘종교와 아동교육’을 주제로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종교를 통한 아동기의 올바른 인성형성 방안을 탐구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불교 가톨릭 원불교 등 여러 종교의 아동교육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찬이 이어진다. (02) 2260-3835 조동섭 기자

최면사·퇴마사 1:1 실전교육

빙의치유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원인을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퇴마, 우울증, 대인공포, 불면증, 게임중독, 성적향상 등등... 원인을 불치병... 하는 일마다 안풀리는 분은 사주를 바꾸세요, 산소수맥

빙의, 퇴마, 전생,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최면 수련을 통해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본인인 원할 때까지 ◇ 교육비용 : 200만원 ◇ 최면 집중교육도 가능
 ◇ 스님이나 포교사님 현오스님만의 특별교육도 가능 (본인이 원할 때 추가비용 별도)

“2009년 3월 3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 「귀신씨인 나무의 실제」 편 출연”

서울지부 : 보광사
 H·P 016-9511-0840
 ● 서울교육 : 연중무휴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2-0666 / 364-5586
 H·P 010-5656-3915 / 010-3056-3315
 ● 부산교육 : 연중무휴

성봉사 최면사·퇴마사 현오 합장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